

# GROVERSE NEWS

2025.4.21(월) 그로버스 컨설팅 해외뉴스분석팀

## [주요 내용]

- 외신 인터뷰
  -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, 트럼프관세에맞대응하지않을것 ” (FT)
    - 한권한대행영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 미국과 윈 윈할 해법 찾으려 노력”
- 한미 관세협상
  -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번 주 미국에서 관세 협상 예정 ( Bloomberg )
  - 한국 정부, 이번 주 미국과 관세 협상 (Reuters)
- 미국 관세 조치
  - 트럼프관세첫충격파, 곧세계경제강타(Bloomberg)
  - 미소비자들관세우려로지출줄이기시작(USA Today)
- 동북아 안보
  - 중국러북군사협력강화우려(SCMP 기고)
- 북한
  - 영국 기업 북한 취업 사기 우려 속 면접 권고 받아 (Guardian)
- 사회
  - 한국, AI 성범죄의 보이지 않는 상처에 직면...“법은 무력했다 ” (SCMP)
  - 중국을 공격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(RFI)

## 외신 인터뷰

**<FT 4.20 서울발> 한덕수 권한대행, 트럼프 관세에 “맞대응하지 않을 것”**

**(Christian Davies)**
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<FT>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관세에 “맞대응하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힘
- 한 대행은 한국의 산업 역량과 경제 발전, 문화, 성장, 부 모두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하고, ‘윈-윈’ 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
- 한 대행은 한국이 무역 흑자 감소를 논의할 용의가 있으며, 그 가운데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(LNG)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가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

- 또한 해군 군함 건조 협력 확대는 미국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,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논의에도 열려 있음을 시사
- 한 대행은 “협상 결과로 일부 산업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”면서도 양국 간 무역 광범위한 자유화가 한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”이라고 강조
- 한 대행은 안보 문제 논의에 대한 “명확한 틀”이 아직 없다고 강조. 다만, “사안의 성격에 따라”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협정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

## 한미 관세협상

**<Bloomberg 4.20>**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번 주 미국에서 관세

### 협상 예정 (Soo-Hyang Choi)

-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을 방문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할 예정
-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“이번 협의는 미국 측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, 현재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”이라고 발표
-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에 깜짝 등장한 데 이어 한미 협상에도 참석할 가능성에 대비 중
- 한국 정부는 대미 흑자 축소를 위해 미국 측에 제시할 여러 패키지를 검토 중. 조선 협력, 알래스카 LNG 사업, 방위비 분담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주제

\* **<Reuters>** 한국 정부, 이번 주 미국과 관세 협상

## 미국 관세 조치

**<Bloomberg 4.20>** 트럼프 관세 첫 충격파, 곧 세계 경제 강타 (Craig Stirling)

-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언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, 새로운 경제 전망과 설문조사 결과들이 그 초기 여파를 보여줄 예정
- 미국에서는 국제통화기금(IMF)이 22일 발표되는 새로운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예정
- 아시아에서는 호주, 일본, 인도에서 4월 제조·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발표되며, 한국은 소비자심리지수와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(GDP) 속보치를 발표할 예정
- 유럽에서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, 유럽중앙은행(ECB)발 전문가 예측 결과가 공개되고, 독일, 영국 등 유럽 각국의 PMI 지표도 발표될 예정

**<USA Today 4.20> 미 소비자들, 관세 우려로 지출 줄이기 시작 (Betty Lin-Fisher)**

- 글로벌 컨설팅사 커니의 커니소비자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, 미국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점차 지출을 줄이고 있음
- 커니소비자연구소의 케이티 토머스는 “현재 소비자들은 절약을 넘어 희생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, 소비를 미루고 있다”고 설명
- 토머스는 현재 소비자들의 심리가 팬데믹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며, 관세와 무역 이슈는 소비자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진단

**동북아 안보**

**<SCMP 4.20> 중국, 러북 군사협력 강화 우려 (이민룡 숙명여대 교수)**

-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자립과 고립을 선택했지만, 체제 유지를 위해 강대국 간 역학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을 유지
- 핵무기 프로그램은 이 균형 전략의 핵심으로, 북한이 외교·경제적 양보를 끌어내는 데 기여. 이 논리는 오늘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
- 중러북 동맹 형성 가능성은 중국에 전략적 위험을 부를 수 있음. 3국이 서방에 맞서 점차 단결된 전선을 형성하는 한편, 중국의 자체 이익은 훼손될 수 있음
- 러북 관계가 깊어지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약화. 이는 한반도 안정화 세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줄이고 향후 군사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증대
- 중국은 중대한 선택에 직면한 상태. 러북 관계가 심화하는 동안 수동적으로 남아 있다면 전략적 영향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
- 중국이 역내 안정과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재개하고 압박과 대화를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함

**북한**

**<Guardian 4.20> 영국 기업, 북한 취업 사기 우려 속 면접 권고 받아 (Dan Milmo)**

- 영국 기업들은 북한 출신의 가짜 IT 인력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자 면접을 화상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라는 권고를 받음
- 구글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, 지난해 적발된 한 사례에서 북한 인력 한 명이 최소 12개의 허위 신원을 활용해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활동했다고 지적

- 존 헐트퀴스트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매니언트 위협 인텔리전스 총괄은 “북한은 미국에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유럽, 특히 영국에 집중하고 있다”고 경고

## 사회

### <SCMP 4.20> 한국, AI 성범죄의 보이지 않는 상처에 직면...“법은 무력했다”

#### (Lee Seung-ku)

- **2023**년 미국 사이버 보안기업 시큐리티 히어로의 연구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한 인물의 53%는 한국 가수와 배우
- 단 한 달 만에 504개 학교에서 8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, 가해자와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짐
- 성평등 교육활동가 이한은 “한국에서 성평등에 대한 충분 논의 없이 디지털 문화가 급속히 확산한 결과일 수 있다”라고 설명
-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디지털 성범죄 법안을 도입했으나 전문가들은 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
-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“법안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는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”면서 “근본적으로 성별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”고 강조

### <RFI 4.20> 중국을 공격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

-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국 음식점이 밀집한 서울 자양동에서 과격한 시위를 벌이며 “중국인과 빨갱이, 꺼져라”라고 위협
- 이 시위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중 가장 급진적인 성격을 띠는 약 천 명의 학생들이 조
- **12** 월부터 국민의힘 간부들은 중국이 윤 전 대통령 몰락을 기획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해 왔으며, 이번 시위는 그러한 음모론이 구체적인 폭력으로 표출된 사례
- 중국 대사관은 국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, 자국민에게 정치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